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의 특징

양영수 (제주대)

차 례

1. 여성의 성역할 능동적임이 두드러지다
2. 여성의 애정구현 체제순응적임이 두드러지다.
3. 여성의 사랑다툼 관용적임이 두드러지다.

1. 여성의 성역할 능동적임이 두드러지다; 구애방법이나 부부생활에서 여성이 적극적 주도적이다.

1-1.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적극적인 구애방법

한국의 창세신화는 지역에 따라 공통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지역의 창세신화 가운데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총명아기, 총명부인, 박이왕, 서수암 등으로 불리움]의 결연 이야기와 이들 사이에 난 아들들의 부친 탐색 이야기는 한반도 지역의 창세신화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김현선 35) 제주인 특유의 생활상이 표출된 것이라 할 만하다. 제주도 창세신화의 여러 이본들 중에서 다음에 그 일부를 소개하는 세 가지는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얻는 적극적 능동적인 구애방법을 잘 보여준다. 나머지 이본들로 말하면 천지왕에 대한 지상국 부인의 구애 방법이 더 소극적 수동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같은 화소의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의 적극적인 여성상에 대한 신화적 표출을 가려내는 본 논고의 취지에 잘 부합된다 하겠다.

1-1-1. 『風俗巫音』(72-3쪽)에서부터

-- 천지왕은 박우왕 보고, "딸을 내 방으로 보내어 주시오."

박우왕은 대답을 아니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긴 한숨 짧은 한숨 하면서,

“지금까지 잘난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도 내여주지 않았거늘 하룻밤 자고 갈 객인이 나의 딸 하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니 이런 원통한 것이 어디 있으랴.”

대성통곡하여 가니 총명이가 부친 박우왕전에 물어보기를

“무슨 일로 통곡하십니까.”

박우왕이 말하되,

“저 방에 온 손이 너를 자기 방으로 보내라고 하는고로 통곡하노라.”

총명이가 말하되,

“저 방에 온 손님은 천주왕입니다. 천주왕보다 더 나은 사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박우왕이 급히 놀라서 총명아기에게 말하되,

“그러면 목욕단장하고 천주왕을 잘 모셔라.”

총명이가 목욕단장하고 천주왕 방으로 들어가니 천주왕이 말하되,

“나비가 꽃을 찾을 건데 꽃이 나비를 찾으니 인간세상에서는 거꾸로 되는 일이 많겠다.”

그리하여서 하룻밤만 자고 나가려 하니 총명이가 말하되,

“천주왕님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며 딸을 낳으면 이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박우왕=총명아기의 아버지] --

1-1-2. 『朝鮮巫俗의 研究』(秋葉隆 외, 289)에서부터

--일만군사 대접한 후 천주왕이 자는 밤중에 옥얼내기[玉甃]로 머리 빗는 소리가 나니, 이상하다 하고 백주노파안티 무르난 우리 딸에깁니다 하난 불너본즉 월궁선녀 갓흔 아기씨라. 그 날밤부터 배필을 삼아서 살다가 삼일 후에 옥황으로 올라가려 하니, 천주왕께서 올라가마리면 저는 엇지 살며 만약이 자식이나 나면 엇지함내까 하난, 부인은 박이왕이 되야 인간 차재하고 자식이란 낙커든 일홈을 대별왕 소별왕이라 짓고 -- [박이왕=총명아기, 백주할망=박이왕의 어머니]

1-1-3.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진성기, 232)에서부터

[천지왕이 지상세계의 바구왕네 집에 일박하러 와서는 그의 딸을 원한다는 말을 하지만 바구왕이 딸에게 차마 그런 말을 전하지 못하자 이를 안 딸 서수암이 자청하여 천지왕을 찾아간다]

--그 날밤인 서수암[=총명아기]이가 등불을 들고 들어간다. 천지왕은 인기척 소리가 나
난,

“거 누게냐”

“서수암이옵니다.”

“괴씸하다. 느 방으로 나고가라.”

서수암인 애삭호연 지 방으로 돌아온다. 뒷날 밤 야즈시(夜子時)에 천지왕이 등불을 들고 서수암이 방으로 완 서수암이 ㄴ라

“지나간 밤 나 곁은 말에 느가 애삭호였느냐. 남즈가 예즈 방을 찾아가야지 예즈가 남즈 방을 모녀 가는 법이 아니다. 늘ㄴ라 문첩호노라.”

그 날밤인 천지왕광 서수암이가 천상배필 시켰구나.

1-2.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적극적인 구애방법

1-2-1. 『살아있는 우리 신화』(신동훈, 124)에서부터

한 마을 이웃집에 사는 부유한 임정국[임진국]과 가난한 김정국[김진국]이 명산대천[또는 영검 좋은 사찰]을 찾아 자식 얻기를 비는 치성을 함께 드린 결과 양가의 부인들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 두 집안끼리 일찌감치 구덕혼사까지 맺었으나 임정국에게 태어난 딸과 김정국에게 태어난 아들이 장성한 다음 이들 사이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자 쪽에서 먼저 청혼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원강아미와 사라도령이 자라나 열다섯이 되니 혼사를 맺을 때가 되었다. 가난한 김정국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눈치를 췌 원강아미가 스스로 사라도령의 짝이 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1-2-2. 『신들의 고향』(고대경, 84-5)에서부터

부유한 원진국이 자기 딸 원양낭자를 가난한 김진국의 며느리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할 때, 이를 안 원양낭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강단을 써서, 양가의 구덕혼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승차사가 온다는 흉몽 이야기를 지어내 일러바침으로써 사라도령과의 혼인을 성사시킨다.

--(원진국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진국은 누추한 사랑방에 들어앉아 기척도 하지 않았다. 이를 눈치챈 김진국의 아들 사라도령이 그날 밤 원진국 따님 원양낭자에게 가서 말했다.

“원양낭자님아, 빈곤한 사람은 장가도 들 수 없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도령에게 반한 원양이는 전후 사정 얘기를 듣고는 “내게 수가 있으니 아버님을 한번만

더 오게 하십시오.”하고 말했다.

사라도령은 집으로 돌아오고 원앙낭자는 부친 방으로 들어가서 문안을 드렸다.

“아버님 제가 아주 흥한 꿈을 보았습니다.”

“어떤 꿈을 보았더냐.”

“백발노장이 말하되 ‘너의 부모가 부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겼으니 모레 사오 시께 삼차사가 내려와서 너를 잡아갈 것이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노장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버님은 누구하고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런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까?”

*『풍속무음』(49)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있음.

1-3.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적극적인 구애 방법

1-3-1. 『신들의 고향』(고대경, 102)에서부터

밤이 되니 가문장아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발이 시러워 안되겠으니 아들 하나만 보내주면 따뜻이 자겠습니다.”

할머니가 위로 두 형제에게 말하니 모두 ‘길 가던 년’이라고 싫어했다. 작은 마통이가 들어 잠을 자고 부부가 됐다.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86), 장주근의 『풀어쓴 한국신화』(104), 『풍속무음』(67) 등에도 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있음.

1-3-2. 이용옥 심방 <본풀이>(201)에서부터

그 밥상을 다 설러두언 가문장아가, 이젠 밤은 속속 짙어가고, ‘어딜 강 누민 좋고’, ... 죽은 마통이신디 간, 아이고, 요 발에라도 흐끔만 몸뚱이라도 췌우쿠덴 혼난

“어서 기영 험서.”

그 죽은 마통이 발에 간 녹는 게 서로가 부배가 돼어간다.

1-4.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도 독립자존하는 강인한 여성들

1-4-1. 『신들의 고향』(고대경, 323)에서부터

외도동 돛당의 본향당본풀이에서, 토백이 여신은 외지에서 들어온 김씨하르방과 결혼하나 남편의 돛괴기 부정을 탓하여 가출을 감행, 해녀신이 된다.

이 여신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어 냄새를 풍기는 통에 바닷가로 내려가서 따로 살았다. 그녀는 외도천의 포구로 내려와 아름다운 목백일홍 나무를 심어놓고 살면서 일천 잠수들의 숨비소리 듣는 것을 낙으로 삼고 포구로 들어오는 배, 나가는 배들로부터 제물을 받아먹으며 살았다.

1-4-2. 『제주도신화』(현용준, 241)에서부터

송당리 케내깃당 본풀이에서, 백주또는 한라산의 소천국과 결혼하여 송당리에 거주하며 남편을 사냥꾼에서 농사꾼으로 만들지만, 거식가인 남편이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었다고 빼쳐서 웃송당으로 가더니 당오름을 차지하는 여신이 된다.

“당신 소 잡아먹은 건 예상사지만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으니 소도독놈 말도독놈이 아니냐, 살림을 분산합시다.”

백주또는 화를 내며 바람 위로 올라서고 소천국은 바람 아래로 내려서서, 백주또는 당오름에 가 좌정하고 소천국은 알손당 고부니 마을에 와 좌정하였다.

1-4-3. 『신들의 고향』(고대경, 318)에서부터

금백조의 셋째 아들 개로육서또는 상산읍-표선면의 경계인 川尾川 일대 세 마을(신평, 신천, 하천)의 수호신인데, 동부인하여 한라산을 유람하다가 토산리 새금상에서 예쁜 처녀에게 반하여 부인을 버리는데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한 원망심에서 ‘돛괴기 부정’을 저질렀다가 버림을 받으나 천미천 수호신으로 좌정한다. 작은부인으로 들어왔던 새금상처녀는 표선리의 늙은 남자 저바당한집에게 마음을 뺏긴 결과로 남편과의 만남은 제일(祭日)에만 한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후 ‘고첫당’ 당신이 된다. 부부인연을 끊지는 않으나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말은, 결혼제도를 파괴하지는 않으나 그것보다는 애정의 독립자존성을 더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터이다.

작은부인 새금상처녀는 내끼 지경에서 멀리 내려다보이는 표선 앞바다의 푸른 물결에 반해 버리고 말았다. 표선리에는 남자답고 늙은 저바당한집이 살고 있었다. 육서또가 같이 살자고 하소연했으나 마음은 벌써 바다로 달려가곤 했다.

“마음이 저바당한집에게 갔는데 어찌 당신과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수는 없지만 이 왕 맺은 인연이니 제일이 돌아오면 제사상이나 같이 받고 일배 한 잔씩 합시다.”

1-4-4. 『제주도 신당 이야기』(하순애, 133-4)에서부터

평대리 ‘수데깃 서당할망’ 설화에서, 할망신은 원래 강원도 철산에서 들어와 하르방신 신선또를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할망신이 ‘돛괴기 부정’을 저지른 결과 살림을 가르면서 두 신이 모두 좌정처를 옮겨서 하르방신은 마을 안 심방네 집으로 들어서고 할망신은 마을 밖으로 나가 좌정한다. 할망신은 마을 밖에 좌정하여 평대리만이 아니라 이웃한 한동리 사람들도 부터도 섬김을 받는 강력한 신통력을 발휘한다. 이 할망신의 영험한 위세는 심방들이 들려주는 본풀이, “마흔여덟 상단골도 굽어보고, 설흔 여덟 하단골도 굽어보고, 스물여덟 하단골도 굽어보고, 모든 단골의 온갖 정성을 받습니다”와 같은 구송에서도 나타난다. 수데깃 할망신의 위세는 나중에 이루어진 신당 위치의 변동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원래 돛괴기를 먹지 않던 하르방신이 차츰 돛괴기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을사람들은 하르방신의 좌정처를 할망신 옆에 더부살이처럼 옮겨놓은 것이다.

결국 마을사람들은 하르방신을 할망신이 좌정한 수데깃당으로 옮겼다. 물론 할망신과 나란히 좌정시키지는 않았다. 어디까지나 수데깃당의 주인은 할망신이므로 하르방신은 수데깃당 한쪽에 반평 남짓한 자그마한 시멘트 집을 지어 좌정시켰다. 할망신을 부정하다고 내몰았던 하르방신이 다시 할망신 곁에서 더부살이하다니!

1-5. 남성의 지위를 격상시켜주는 똑똑한 여성들

신분이 낮거나 곤경에 처한 남편[남자]의 지위를 격상시켜준다.

1-5-1. 삼성신화에서 벽랑국의 3공주는 사냥꾼이던 탐라의 3형제에게 오곡의 씨앗과 가축을 선물하고 농사를 가르친다.

1-5-2. 토산리 일뤼당 본풀이에서, 송당리 금백주와 소천국의 일곱째 아들 브름웃도가 불효비레하여 용왕국에 유배되어 갔다가 돌아왔을 때 불효자의 낙인을 씻고 부모의 신임을 회복케 된 것은 (용왕국 3녀인) 아내가 (시어머니 눈에 들어간 콩깍지를 빼내어주는) 기지를 보여준 때문이다.

1-5-3. (소천국과 백주또의 여섯째 아들인) 김녕리 궤내깃한집은 불효한 행동을 한 탓으로 (무쇠 석갑 속에 갇혀서) 바다로 쫓겨 났다가 용왕국 셋째 공주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뒤 강남천자국에서 전공을 세우고 귀향하여 위신을 회복한다.

1-5-4. 송당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사냥꾼이던 제주 남자 소로소천국과 결혼한 (강남천 자국 출신) 백주또는 남편에게 농사를 가르치는데, (자기네 밭 갈던 소와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는) 남편의 비레를 탓하여 살림을 분산한다.

1-5-5. 담대한 처녀 정좌수 딸은 한라산 숲에 들어갔을 때 황서국서(또는 최지국의 아들)가 희룡을 걸자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의 몸을 나무에 묶어버렸다가 애원을 듣고 이를 풀어주는데, 나중에 그가 비에 흠뻑 젖은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는, 그 남자가 바로 자기가 택한 신랑감이라고 부모에게 공언하여 둘이는 부부가 된다.

--비가 퍼부어서 사방이 물천지가 된 날이었다. 한라산에 사냥을 왔던 황서국서가 마새 총을 든 채로 몸이 꼴딱 젖어서 거지꼴이 되어 인가를 찾아왔다. 정씨 집에 들어오자 정좌수 딸이 말했다.

“아버님, 저 사람이 내 남편될 자입니다.” (고대경, 281)

1-5-6. 천자국 3녀인 명오부인은 불구의 남성을 구원해주고 나서 죽은 후에는 나란히 마을수호신이 된다.(고대경, 286)

*제주의 설문대할망 신화에서는 남성신의 도움이 없이 여성신의 단독적인 노동으로 제주도 창조가 이루어진다. 설문대하르방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본(異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남성신의 역할은 미미하고 부차적이다. 이는 제주 여성의 생명력이 강하고 제주도 주민의 생활사에서 여성의 상대적인 역할이 컸음을 증거한다고 생각된다. 제주도 신당에 좌정한 신들 중에 70% 정도가 여성신이라는 사실(하순애, 132)도 제주도 역사에서 여성의 성역할이 막중했음을 짐작케 한다. (육지부에는 여신의 비율이 15%미만 임). 설문대할망 신화에서 특이한 것은 이 여신이 인간을 위한 자신의 시혜와 업적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문대할망 여신이 인간들로부터 어떤 방식의 숭배나 치성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다른 신들은, 인간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막대한 희생, 제물, 치성을 바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지만 설문대할망은 이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1-6. 뛰어난 지혜로써 사랑과 신뢰를 성취하는 여성들

1-6-1. 세화리 금상님 설화에서,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천하명장 금상님이 세화리의 아름다운 여신 백주또를 배필로 하기 위해 들어왔으나 그녀의 외조부 천자님[천자또]로부터 뜻괴기 먹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궁지에 몰릴 때, 백주또는 그의 식성을 바꾸어 배필

이 될 것을 제언함으로써 부부되는 인연을 만들어 낸다.

1-6-2. 차사본풀이에서, 아들 삼 형제 죽은 사유를 밝혀달라는 과양생처의 소지를 놓고 고민하는 김치원에게 그의 부인은, 일렛동안 아침 일찍 사령들을 입참시켜 보고 늦는 자를 뽑아 염라대왕을 잡아오도록 함으로써 천하장사 강림을 선발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1-6-3. 차사본풀이에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라는 명을 원님으로부터 받아 고민하는 강림에게 그의 부인은 저승 가는 길에 필요한 옷과 음식과 길안내를 해주고 고사를 지내주면서 남편에게 의기를 심어준다.

1-6-4.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는 입담좋은 변론으로 제인장재[천년장자]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아들 할락궁이가 무사히 장성할 수 있도록 한다.

1-6-5. 자청비가 서당에 글공부 가는 문도령을 처음 만나는 주천강 연화못에서 도령이 마실 물을 청하자 “도련님 먼길에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급히 물을 먹어 채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고대경 126) 하면서 버드나무잎을 따서 물바가지에 띄어줌으로써 여자에 대한 남자의 믿음과 환심을 얻는다. 이어서 자청비는 문도령이 거무선생한테 글공부 가는 길임을 알자 급히 집에 들어가 남장을 하고 나와서 문도령과의 동행길에 나서고 3년 동안의 동거동학 기회를 잡음으로써 애정실현의 능동적인 주체성을 발휘하는 기민함을 보여준다. 또한, 거문선생이 남장한 자청비의 여자 같은 몸매에 의문을 가지고 시키는, 땀땀한 가슴 만져보기, 속옷 입고 달리기, 오줌발 멀리 닿기 등 테스트에 임기응변의 지략으로 잘 통과하여 문도령과의 혼성동거를 오래도록 즐긴다.

1-6-6. 자청비는 감쪽한 사랑 유희를 즐길 줄 아는 로맨틱 리얼리스트이다. 그녀는 ‘천태산 마귀할망’의 수양딸로 있을 때 자기가 짓는 문도령의 혼례복 옷자락에 ‘자청비’라는 이름 석 자를 새겨넣음으로써 만날 길 없는 애인에게 자기의 처소를 알리게 되는데, 이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은 자청비의 방문 틈으로 집어넣은 자기 손가락 끝을 장난삼아 바늘로 찌르는 것에 화를 내고 하늘로 올라가 버림으로써 두 사람은 한 동안 다시 헤어지는 신세가 된다. 오랜 세월 자기를 망각했던 애인을 향해 애절한 기다림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투정 같은 것이 남자의 단기(短氣)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 셈이지만, 자청비의 이같은 장난기는 사랑의 줄다리를 밀고 당기면서 애정표현의 과정을 즐기는 유희적 사랑 욕구의 발로라 할 것이다. 또한, 자청비가 글공부를 함께 했던 문도령을 데리고 귀가하는 날 부모의 허락을 받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3년을 눈속였던 사랑의 욕망을 풀려고 할 때 그

녀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어 버림으로써 '놀란 문도령이 개도 쥐도 모르게 누웠던 방으로 돌아가 한숨을 지으며 이불속에 들어갔으나 자청비 고운 모습이 아른아른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신동훈 231)'는 사랑의 유희는, 욕망 폭발의 임계점에서 오는 사랑 체험의 극대화를 기하는 것이고, 기다림의 미학으로써 사랑의 진행과정을 즐기는 것이라 하겠다.

*아들 낳기를 소원하는 祈子仙供의 시주가 (한 근이) 모자라서 딸이 태어나는 화소가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월정리 본향당본풀이 등) 제주신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태어난 딸이 결국에는 집안에 행운을 가져오고 기적을 이루어준다. 인류의 과거사가 남성우위의 역사라고 하지만, 제주의 역사에서 남성우위는 名만 있고 實은 없어서, 名實이 상부하지 않는 표리부동의 역사라 할 거이다.

*그리스신화에서의 남녀 성역할 양상을 보면, 초기의 여성우위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져버리고, 후기에 정착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설화에서는 확고한 남성우위적 특징을 보여준다. 즉, 가이아 여신까지는 확실한 여성우위이고, 제우스 신에 와서는 여성우위 잔영만이 엿보이며, 아폴로, 메넬라우스, 아가멤논, 오딧세우스 등에 관련해서는 확고한 남성우위적 요소를 보여준다.

*그리스신화에서 남성우위 성향은 주인공들의 반항적 행동의 귀추에서도 나타난다. 즉, (크로노스, 제우스, 프로메테우스, 큐피드, 시지푸스 등) 남성 주인공들의 체제반항과 부모거역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성공하나, (아리아드네, 메테아, 스켈라, 아라크네 등) 여성의 반역행위는 뜻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불행으로 끝나고 때로는 가혹한 응징을 당하기도 한다. 남성의 반항은 뜻하는 결과를 얻는데 반하여 여성의 반항은 징치되고 있다는 것은 남성우위 사상의 징후로 볼 만하다.

*바호펜에 의하면, 역사는 성적 혼란 시대에서 시작되어 가모장제 시대를 거쳐서 가부장제 시대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리스신화에서 (막강한 권능을 가지면서도 인간세계를 어지럽히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혼란시대를, (생산력과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는 가모장시대를, (인간세계를 해꼬지하다가 남성 영웅에게 패배하는) 스팅크스는 가모장시대의 종언을 상징한다고 한다.

2. 여성의 애정구현 체제순응적임이 두드러지다; 사랑을 위해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제주신화의 여성들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대방 남자의 고귀한 신분, 부모와의 의견 합치, 가문의 위신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체제순응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랑 문제를 두고 부모자식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있어도 이를 화해로 이끌어 감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2-1. 총명아기는 천지왕의 구애에 대해 그 간접적인 시사만을 받고도 즉시 승낙의 태도로 나온다. 그녀는 천지왕보다 더 훌륭한 신랑감이 어디 있겠느냐고 아버지에게 묻는다.

2-2. 토산땅으로 들어오던 나주 금성산의 처녀신령은 양반차림의 개로육서또에게 손목을 붙잡힐 때는 이를 뿌리치고 은장도로 자기 손목을 깎아버리는 강단을 보이지만, 이 말을 들은 용왕황제한테서 욕을 먹자 이를 후회하고 동산 위로 올라가서 가버린 남자를 부른다. 세 번 불려서 대답이 없자 이들의 만남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들 남녀가 좌정한 신당 사이에는 신불(神火)로 통신하고 언약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 (현용준, 284)

2-3.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맺었던 딸의 혼약을 어기려고 할 때 그 부당성을 설득시킴으로써 사라도령과의 결혼을 성사시킨다. 아버지인 임진국 대감이 사라도령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양반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배신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딸의 설득을 따라주는 것이 가문의 위신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다.

2-4. 초공본풀이에서,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는 자기도 모르게 주자선생의 사랑을 받고 그의 아기를 잉태함으로써 부모(임정국대감과 임진국부인)에게서 쫓겨나는데 이들이 이별하는 대목은 제주신화에서 불효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모의 버림을 받는 자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제주신화에서 부모가 전래의 가규를 어긴 자식을 내쫓는 사례는 허다하지만, 내쫓기는 자식은 부모가 시키는 말을 거역하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출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의 고난 끝에 더 큰 행운의 기회를 잡게 된다. 또한, 부모가 집 떠나는 딸에게 옷가지를 실은 검은 암소를 함께 딸려보내는 초공본풀이에서 보듯이, 부모는 자식을 내쫓으면서도 확실한 자식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는 것도 제주신화에 나타나는 '자식 내쫓기' 모티브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2-5. 자청비와 문도령이 연못가에서 처음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는 그 첫 장

면에서부터 그녀의 뛰어난 재치와 대담한 발상을 보여준다. 사랑의 열정과 기교를 겸비한다는 점에서 자청비는 로맨틱 리얼리스트라고 불리울 만하다. 연못가에서 물 한 그릇 달라고 청해 온 남자가 하늘나라 왕자의 신분임을 알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그녀의 충동적인 사랑 발심과 영특한 사랑 유희를 놓고서 세속적이라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청비는 또한 문도령으로부터 사랑의 배신을 당할 때에도 이를 슬기롭게 잘 대응하여 원래의 사랑을 회복시킨다. 문도령은 서수왕 딸과 결혼하라는 부모의 요청에 순종하여 자청비를 실망케 하며, 그녀가 베 짜는 주모할머니의 수양딸로 있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던 문도령과의 재회가 어렵게 이루어지려는 자리에서도 그는 (바늘로 손가락 찌르는) 그녀의 사랑놀이 어리광에 화를 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린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영특한 권면에 힘입어 부모의 고집을 누그러뜨리는 진언을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그들이 며느리감에게 내건 작두타기 시험에 자청비가 용케 통과함으로 인하여 문도령은 서수왕 딸과의 결혼은 피할 수 있었으나 그는 나중에 서천꽃밭 막내딸과의 임시 동거에 마음을 뺏겨서 자청비가 찾아올 때까지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무정함을 보여준다. 결국 제주신화의 대표적인 러브스토리의 여성은 배신행위를 보이는 남자를 지혜로써 선도하고 강인한 인내와 열정으로써 원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데에 성공한다. 자청비는 (가족간의 인륜질서 같은)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키면서 사랑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에서, 그리스신화 여성들이나 낙랑공주처럼 비현실적인 낭만을 추구하지는 않는, 말하자면 로맨틱 리얼리스트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자청비 설화 및 중국의 축영대(祝英台) 설화 비교

축영대 설화의 개요

성질이 활달한 축영대는 남장을 하고 글공부하러 서당을 향해 가던 중에 양산백(梁山伯)이라는 서생을 만나서 동행하는 동안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 서당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녀의 애정은 깊어지지만 양산백은 그녀의 속마음을 몰라주고 그녀가 여성임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은 축영대는, 한번 집으로 돌아가면 양산백을 다시 못 만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누이를 그의 배필로 추천하겠으니 그녀의 귀향길에 같이 동행하자고 권한다. 뒤늦게 축영대의 여성 신분임과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양산백이 그녀의 집에 당도하나 그녀의 약혼이 이미 성립되어 물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양산백은 축영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고백하나 그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거절을 당한 끝에 집으로 돌아와 상사병을 앓다가 죽어버린다. 그의 죽음을 전해 들은 축영대는 결혼식 날 화려한 홍색 예복 대신에 하얀 상복을 입고 신랑 집으로 가던 중 양산백의 무덤 앞에 이르러 무덤을 안고 구슬프게 우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며 벼락이 치자 무덤이 가운데로 짝 갈라진다. 축영대가 갈라진 무덤 속으로 뛰어들자 바람이 금방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며 무덤에서 솟아난 듯 두 마리의 나비가 훨훨 날아오른다. 죽어서야 이루어진 그들의 사랑을 생각게하는 나비들은 지금도 성묘 계절

이 되면 산야의 무덤 주위를 쌍쌍이 날아다닌다는 것이다.

자청비와 축영대 이야기는 서두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사할 뿐 두 여성의 성격이나 자기 실현적 사랑의 방식은 크게 다르다. 자청비는 사랑의 기쁨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 가지 기교를 알고 있지만, 축영대가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기꺼운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축영대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의 반대사를 꺾지 못하여 마음에 없는 결혼을 치르고 있음에 반하여, 자청비는 자기 부모의 의구심을 무마할 뿐만 아니라 문도령 부모의 반대사까지 돌려놓는 당찬 담력과 지혜의 소유자이다.

(여성이 남성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내느냐 아니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일 때)

-그리스신화의 메데아, 아리아드네, 스켈라 - 사랑을 위해 부모를 배신, 사랑은 처음에만 성공하거나 처음부터 좌절됨 - [부모에게 거역]

-중국신화의 축영대 - 사랑을 희생하고 부모에게 순종 [부모에게 동의해줌]

-한국신화의 낙랑공주 - 사랑을 위해 부모를 배신, 좌절 - [부모에게 거역]

-제주신화의 자청비 - 사랑을 위해 자기 부모를 눈속임하고 남자 부모를 납득시켜, 뜻을 이룸 - [동의 얻음]

*그리스신화의 여성들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부모와 조국을 배신하기까지 한다. 메데아는 제이슨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콜키스의 왕인 자기 아버지 아에테스의 명령을 어기고 황금양털을 제이슨의 손에 넣어주었으며 심지어는 제이슨이 무사히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자기 오빠를 죽이기까지 한다. 크레타 왕 미노스의 공주인 아리아드네는 아버지에게 거역하고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로 하여금 지하미로(래버린스)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퇴치한 다음에 무사히 도망치도록 만들어 준다. Megara 왕 Nisus의 공주인 스켈라(Scylla)는 크레타 왕 미노스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조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자기 아버지의 마법 머리타래를 잘라버린다. (사랑을 위해 부모를 배신하는 이들 세 여자는 나중에 모두 자기가 믿었던 남자로부터 사랑의 배신을 당한다.) 부모와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같은 여성들은 로맨틱 러브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스신화에서 태양신 아폴로의 사랑을 받은 여성들은 순수한 사랑이 명예나 권력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낭만적인 사랑의 진면목을 엿보게 한다. 다프네와 카산드라와 마르페사(Marpessa)는 (최고의 미남신이면서 막강한 권능을 자랑하는 올림푸스 주요신인) 아폴로의 구애를 거절할 정도로 진정한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이다.

--오딧세이를 기다리고 절개를 지킨 페넬로페는 20년 고난 끝에 남편과 재회하여 사랑을 이룬다. 반면에 사라도령과 헤어진 원강아미는 자기의 사랑을 뺏으려는 남자에게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사랑의 실현을 이루기보다는 비운의 희생자 역할로 끝난다. 절개를 지키지만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야기보다 절개를 지킨 끝에 사랑을 성취하는 이야기에서 사랑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의 사랑다툼 관용적임이 두드러지다; 일부다처제도를 용인하는 화소가 많다.

제주신화의 여성들은 (애정관계의 상황에 따라서는) 고집스러운 남성독점보다는 너그러운 공유를 택한다.

3-1. 제주시 내왓당 본풀이에서, 상사대왕의 큰부인은 중전위(中殿位, 중전대부인)이고 작은부인은 상군위(相軍位, 정절상군농)인데, 정절상군농이 돌아다니다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멧돼지 발자국에 물이 조금 고인 것을 발견하고 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 하나가 코를 찌른다. 이 털을 태워서 냄새를 맡으니 돼지고기를 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인 상사대왕이 어째서 돼지고기 냄새가 나느냐고 하므로 사실을 말했더니 부정하다며 궁당으로 나가 좌정하라고 한다. 그래서 큰부인은 안쪽으로 좌정해서 돌레떡, 시루떡, 청감주 등 정결한 음식을 받아먹고 작은부인 정절상군농은 담장 바깥으로 좌정해서 돼지고기 열두 반기를 받아먹으라고 하였다. 남편은 작은부인의 부정행각에 대해 응분의 벌을 내려서 신당의 담장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지만, 일부다처의 애정삼각관계를 허물지는 않는다.

*후작을 즐기는 동물적인 욕망이 (시각과 논리에 기초한) 인륜적인 질서를 파괴하기;

<돌아다니다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었다>는 표현은 여자가 느끼는 부정(不貞)행위 유혹을 강하게 암시하고, <멧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는다> <돼지털 하나가 코를 찌른다>와 같은 표현은 남녀간 부정한 행위에 따른 관능적인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3-2. 토산리 일췌당 본풀이에서, 브름웃도는 큰부인[서당팻일췌중저]이 땅과 물을 보러 돌아다니던 중에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이 콧구멍을 찌러서 혼몽상태에 빠진 것을 탓하여 마라도로 귀양보냈지만, 작은부인[용왕국작은딸]이 큰부인에게 찾아가서 귀가를 종용하여 데려옴으로써 한 남편과 두 부인이 공존관계를 유지한다.

3-3.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에 나타나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제주의 열정적인 여성상이 강인함 속에서의 부드러움을 느끼게 한다. 한 여자가 어떤 남자의 사랑을 당연히 요구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부득이한 상황에 이르면 그 남자의 사랑을 고집스럽게 독점하기보다는 다른 여자와 공유하기를 택한다는 것이다. 바람웃도라는 남자가 홍토(紅土)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어느 지체높은 집에서 예쁜 처녀를 발견하고서는 그 집에 일부러 머물러 주인의 환심을 산 후 사위가 될 것을 허락받는다. 혼례식을 올리고 보니 신부는 그 미인이 아니라 추한 여자였고 염탐을 해본 결과 앞서 본 미인의 언니 고산국임을 알게된다. 바람웃도는 처제인 미인에게 다시 구애한 결과 언니 몰래 같이 도망가는데 성공한다. 두 남녀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도망쳐 오지만 어느새 고산국이 알고 뒤쫓아 와서 세 사람의 다툼이 벌어지나 고산국은 마침내 울분을 참고 남편과 동생에게 선언한다. 고산국의 주도하에 세 사람이 뽕개질과 활쏘기로써 경계를 정한 그들은 고산국이 차지하는 서흥리 하고 바람웃도와 동생이 차지하는 서귀리 동흥리 하고는 일체의 왕래를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고산국은 자기에 배신한 남편에게 해코지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도 억누른다. 동거하지는 않으면서도 부부간의 정은 그대로 두기로 하는 아주 애매하고 불안정한 관계를 감수하는 고산국의 마음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진다. 만약에 고산국이 남편을 죽이거나 해친다면 그와의 애정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 되고, 만약에 동생을 아주 물리치고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남편과 동생으로부터의 반발과 배척을 삼으로써 한 남자의 애정을 완전히 포기하는 셈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때 고산국의 결심에 담긴 오묘한 뜻이 감지된다 하겠다.

3-4. 자청비는 자기 남편이 된 문도령에게 서천꽃밭 사라대왕의 막내딸과 맺었던 (전략적 위장결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기간씩 세월을 양분하여 두 여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살라고 하는데 자청비의 이 말은 명백한 일부이처제 수용이라 할 수 있다. 남장차림을 한 자청비가 처음에 서천꽃밭의 꽃감관 사라대왕을 만날 때에도, 꽃밭의 파괴자인 부영이를 퇴치해줄 그녀를 막내사위로 삼겠다는 청혼을 들은 자청비가 이미 장가를 든 몸이라고 하자 “당신 같이 착실한 도령이라면 열 번째 첩으로라도 드리지요”라는(고대경 153) 말로써 혼인을 성립시키는데 이 또한 일부다처제의 수용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신화의 여성들은 자기 의중에 있는 남자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한다. 바다의 요정 스켈라(니수스의 딸 스켈라와는 동명이인임)가 海神 글라우쿠스로부터의 구애를 거절했을 때, 글라우쿠스는 마녀 키르케(Circe)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키르케는 그의 요청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사랑에 빠진 다음에 스켈라에 대한 그의 애정이 무산되도록 마술을 쓴다. 스켈라의 목욕물에 독약을 풀어놓거나 그녀를 개 머리 달린 괴물로 변신시켜서

이 요정에 대한 글라우쿠스의 사랑이 철회되도록 하는 것이다(Edith 284). 새벽의 여신 Eos[Aurora]는 테살리 왕자 케팔루스(Cephalus)에 대한 구애가 실패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그의 부인 프로크리스가 남편 부재중에 부정을 범했다는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정절이 굳은 이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종내는 남편의 실수로 부인이 살해를 당하는 비극을 맞게 한다(Cliffs 110). 아도니스를 사이에 두고 페르세포네와 아프로디테는 기를 쓰고 사랑의 독점을 추구하다가 사랑하는 남자의 죽음을 부르고 만다.

· *일부다처 제도는 똑똑한 여성이 매력있는 남성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은 제도이다. 여성은 못난 남자를 독점하기보다 잘난 남자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주신화 여성 주인공들의 사랑 방식인 것 같다.